



JARA NEWS

January 2018, No. 119

from
Japan Automotive Recyclers Alliance
www.jara.co.jp

Published by JARA Corporation
Tokyo Head Office: Shirawa Bldg. 1-2-2-7F
Nihonbashi, Chuo-ku, Tokyo JAPAN 103-0027
Phone: +81 3 3548 3010 / Fax: +81 3 3231 4690



토요타와 파나소닉 협업, 경쟁력 높은 제품으로 각형 전지, 자원 확보와 재생도

토요타 자동차와 파나소닉은 13일, 차량용 각형 전지 사업의 협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업계 최고의 차량용 각형 전지를 실현하여, 토요타뿐만 아니라 널리 자동차 업체의 전동차 보급에 기여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업 내용을 검토해 나간다”고 밝히며, 전기 자동차(EV) 등 차세대 전동차를 구동하는 경쟁력이 있는 전지 제조의 실현을 목표로 할 생각이다. 전지용을 위한 자원 확보, 전지의 재사용·재활용도 협업의 대상으로 고려한다. 일본 국내의 자동차와 전자기기의 정상급 기업이 제휴하며, 전동차의 경쟁력 향상에 임한다.

양사의 전지에 관한 노하우를 상호 간에 협력하여, 차량용 전지의 성능, 가격, 안전성의 진화와 안정 공급 능력의 확보

C02 삭감 수치 (JARA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02 삭감 효과 참고치
2017년11월

2, 386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시, 신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과 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의 차이가 C0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러협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LCA (전생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 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를 염두에 두고 협의한다.

토요타와 파나소닉은 지금까지, HV용 전지 부분에서 협력해 왔다. 1996년 파나소닉 EV 에너지(현 프라임어스 EV에너지, PEVE)를 합작으로 설립. 누계 1200만 대의 HV용 니켈 수소 전지, 리튬 이온 전지(LIB)를 생산해 왔다. PEVE의 출자 비율은 애초의 파나소닉 60%, 토요타 40%에서, 현재는 토요타 80·5%, 파나소닉 19·5%로 바뀌었다.

파나소닉은 차량 구동용 전지 부분에서 세계 최대 업체이며, 미국 테슬라와는 원통형 LIB셀을 생산하는 ‘기가 팩토리’를 미국에서 공동 운영하는 등의 협업 관계에 있다.

토요타는, 미·중·유럽 등 주요 시장의 환경 규제에 양산되는 EV의 필요성이 사활적으로 높아진 것에 대응하여, 2016년 12월에 EV사업 기획실을 신설. 2017년 8월에는 마쓰다와 EV기반 기술의 공동 개발을 포함한 자본·업무 제휴를 단행하며, 9월에는 덴소를 포함한 3사에서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EV씨에이스피릿(EV C.A Spirit)’을 설립했다. 심장부인 전지 개발에서는, 차세대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주목받는 전고체전지를 200명 이상의 체제로 연구 개발하여, 2020년대 전반으로 실용화시킬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차세대 전지의 생산 체제 구축은, EV양산을 위한 과제이다.

◆ 토요타 자동차 도요타 아키오(豊田 章男) 사장 “지구 규모의 과제 해결을 위한 전동차를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기간 부품인 차량용 전지의 성능·가격, 안전성의 새로운 진화와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자원 조달, 재사용·재활용도 포함하여, 구체적인 협업 내용을 검토해 나간다.”

◆ 파나소닉 스가 가즈히로(津賀 一宏) 사장 “자동차는 산업 자체도 크게 변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다음 100년도 격렬한 변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현상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도전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전동차의 보급에 대해 나가고 싶다.”

(일간 자동차신문 12월 14일)



JARA, 시즈오카에서 프론트 업무 세미나 입문 코스 개선을 위해 디스커션

JARA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러즈·얼라이언스, 기타지마 소쇼(北島 宗尚), 도쿄도 주오구(東京都 中央区))는 최근, ‘프론트 업무 세미나 입문 코스’를 시즈오카현 스소노시(静岡県 裾野市)에 있는 아이오이넷세이도와 자동차연구소(あいおいニッセイ同和自動車研究所)에서 개최했다.

프론트 업무의 역할과 목적을 재인식하고,接客 대응에 필요한 지식과 마음가짐을 습득하는 것으로 8개 사 9명이 참가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일반 상식이나接客 매너 외에도, CS 향상,接客 화법, 클레임 대응, 이익의 개념에 대한 강습을 시행. 전화 대응이나 접수창구에서의 대응 등에 대한 롤 플레이도 했다. 롤 플레이에 대해서는 비디오로 촬영. 참가자 전원이 영상을 다시 검토해 본 후, 객관적인 시점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으로 이어지는 디스커션도 실시했다.

◆재활용 부품, 80% 이상 좋은 이미지

JARA는 자동차 재활용 부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클래식 카의 전시 이벤트에서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40명이 응답하였다. 90% 이상의 응답자가 재활용 부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 이상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실제로 자신의 차량에 사용되는 것을 상정한 경우는 저항감을 나타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나타났다고 한다. JARA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사용자의 이용 촉진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생각이다.

(일간 자동차신문 12월 21일)



재활용 3사, 방글라데시에 정비 공장을 설립

재활용 3사, 방글라데시에 정비 공장을 설립

◆ 현지 그라민과 합작

중고 타이어 판매를 다루는 설파워(요코하마 시 고호쿠구(横浜市 港北区), 가와무라 타쿠야(川村 拓也) 사장) 등 3사는, 방글라데시의 그라

민 그룹과 현지에서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자동차 정비 공장을 시작한다. 당면은 약 3천 대의 그라민의 사유 차량의 정비를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 단계적으로 그룹 외부의 일반 입고도 촉진하며 그 규모를 확대한다.

합작 회사의 명칭은 '그라민 자펜 오토 월드'로, 2018년 3 월에 설립한다. 일본 측에서는 설파워와 업라이징(도치기현 우츠노미야시(栃木県 宇都宮市), 사이토 고이치(齋藤 幸一) 사장), Mogee (미야기현 와타리초(宮城県 亶理町), 모기 히로시(茂木 宏) 사장)의 3사가 출자한다. 정비 공장은 수도 다카에 건설하며, 이르면 2018년 1월에 가동한다. 공장 규모는 미정. 직원은 모두 현지에서 고용할 계획이다.

공장 개설을 계기로 일본 측에서 타이어 휠을 비롯한 중고 부품 용품을 수출한다. 회사 차량의 보수용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그룹 외에도 판로를 찾아 판매한다. 방글라데시 국내를 주행하는 차량의 대략 80 %가 일본 차라고도 한다. 가와무라 사장은 "일본식 정비, 일본의 보수 부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폐기 자동차가 방치된

을 유지해 준 것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도산이 라든가, 회사 문을 닫는다는가, 어두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었다"(업계 단체 간부)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 산업 폐기물의 처리 증가도 배경으로

또 다른 하나의 상승세의 요인이 오름세인 신차 판매이다. 10, 11월은 닛산 자동차와 SUBARU의 완성 검사 문제를 배경으로 전년 대비 실적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9월까지의 경차를 포함한 신차 판매 전체에서는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로 추이 했다. "ELV가 발생하는 것은 신차 판매에서 2, 3개월 정도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년 실적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동)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예년, 파쇄 공정의 재공품 건수는 신차 판매에 연동해서 3, 4월에 피크를 맞이한다. 그 다음은 감소가 되어 가는 통례이지만, 올해는 피크 상황 그대로 추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 말하는 이른바 나츠가레(夏枯れ=여름철, 특히 8월에 고객이 줄어 경기가 나빠지는 것)가 없다. 이것은 재공품 건수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처음인"(동) 것이다.

ELV의 인수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이외에, 산업 폐기물의 처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JARC에 따르면 "도카이(東海) 지구에서는 인수 용량 초과로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 폐기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ELV까지 처리할 수 없는" 상황도 드문드문 보인다. 업무량의 증가로 일손 부족도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JARC는 2017년도의 ELV인수 대수에 대해 305만 대를 상정하고 있다. 현재 상황의 속도에서 추이 한다면 325만~330만 대에 달할 전망이다. 3년 만에 320만 대를 넘어, 전년 실적을 앞지른 것은 2014년도 이후 4년 만이다.

2014년도는 전년도 대비 3.0 %가 감소한 333만 1901대, 2015년도는 동 5.3 %가 감소한 315만 6459대, 2016년도는 동 1.9 %가 감소한 309만 6790대였다.

(일간 자동차신문 12월 9일)

자연회(自研会)가 25주년, 제100회 예회·축하회 개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 측이 가지고 있는 해체 처리 노하우를 이용하여, 방글라데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모기 Mogee 사장) 일부터, 자동차 재활용 사업도 실시할 방침이다.

출자 비율은 그라민 측이 51 %, 일본 측이 49 %.

<그라민 그룹>

1983년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 무하마드·유누스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 대출(마이크로 파이낸스)을 시행하는 은행으로 설립한 그라민 은행을 축으로 한 그룹. 교육, 의료, 에너지, 정보 통신 등 50개 사 이상으로 구성한다. 금전적인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인 과제 해결을 비즈니스 방법으로 실시하는 '소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그 방법은 세상을 바꿀 새로운 사업으로 주목을 받아, 유누스 씨와 그라민 은행은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일간 자동차신문 11월 28일)

ELV 인수 대수가 높은 수준 2017년도 3년 만에 320만 대 넘을 정도

사용 후 자동차(ELV)의 인수 대수가 높은 수준을 보인다. 자동차 리사이클 촉진 센터(JARC)가 정리한 2017년 10월 실적(확보)은, 전년 동월 대비 9.7 %가 증가한 27만 6804대이며, 12개월 연속으로 증가. 11월(속보)도 플러스 실적이었다. 현재 처한 상황의 속도라면, 이번 연도의 ELV의 인수 대수는 애초 예상한 305만 대를 크게 웃돌며 "연도 말의 대수 레벨에 따라서는 325~330만 대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JARC) 3년 만에 320만 대를 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ELV의 인수 대수의 전년도 실적을 웃도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고가로 추이 되는 고철 스크랩의 시세와 오름세의 신차 판매가 뒷받침하고 있기"(JARC) 때문이다. 특히, 고철 스크랩 시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상황에서 3만 엔을 넘고 있으며, 11월은 6차레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JARC의 담당자도 놀랐다.

고철 스크랩의 시세는 약간의 가격 변동의 움직임은 있지만, 작년도 후반부터 높은 가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폐차의 구입 가격이 설정되기 쉬우며, 강제로 매입되고 있다." 시세는 생물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난 1년은 재활용 사업자의 경영

자동차 보수부품 연구회(이하 자연회(自研会), 구리하라 히로유키(栗原 裕之) 회장)는 4 일, 도쿄 시내의 호텔에서 '제100회 25주년 축하회'를 개최했다.

자연회는 자동차 재활용 부품의 인지도 향상과 보급, 계몽을 도모하기 위해, 재활용 업계의 분야를 막론하고 연계하는 연구회로 1993년에 설립되었다. 예회를 연 4회 개최하고 있으며, 같은 날에 개최한 예회로 제100회를 맞이하였다.

구리하라 회장은 모임의 모두 발언에서 "25년 전 자연회는 9개 사로 시작하였다. 25년이라는 역사의 축적은 여러분의 막대한 협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연회가 있다. 101회째부터는 새로운 자연회로 재활용 업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인사했다.

자연회는, 일본 국내 자동차 중고부품 사업자로 항상 업계보다 한발 앞서 나아가며 '21세기 업계 만들기'를 목표로 한 자유로운 연구 모임이다. 각 그룹의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발언의 자유, 행동의 자유, 장사의 자유를 신조로 삼고 있다.

설립은 1993년 6월 18일. 제1회 설립 회의를 개최하여, 발기인인 시미즈상사(清水商会)(현·(주)유파트)의 시미즈 노부오(清水 信夫) 사장을 회장으로, 가와무라자동차공업(河村自動車工業)의 가와무라 니시오(河村 二四夫) 사장, 미에파트(三重パーツ)의 사이토 미츠히로(齊藤 貢) 사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연 4회 실시하는 예회에서는 업계 안팎으로부터 게스트를 초청하여 강연 등을 실시. 스웨덴이나 독일, 러시아, 베트남, 두바이 등 해외 시찰 기회도 많이 가졌다.

(일간 자동차신문 12월 7일)





Dismantling process flow chart

How the Car Dismantling machine works

1. Receiving and evaluating cars

Incoming vehicles tested on dynamometer to check engine con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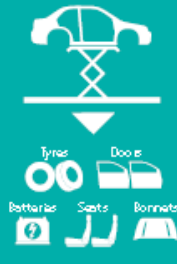
2. Collecting fuel, fluids and chlorofluorocarbon gas

Remove fluids such as fuel, various types of oil and chlorofluorocarbon gas



3. Parts collection

Efficiently collect reusable parts



4. Collecting undercarriage parts and engines

The car is tilted to safely collect engine, exhaust system and suspension parts



5. Car dismantling process

After pre-processing, the car is sorted into raw components such as ferrous, non-ferrous and pla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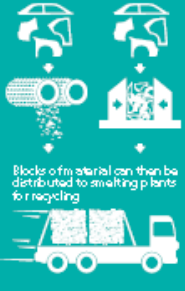
5. Processes after removing parts

Once thoroughly cleaned, the parts become good quality recycled parts



6. Volume reduction processes

After treating, the scrap cars are cut up and crushed or pressed into materials that meet industry needs



The Evolution of car dismantling industry by Kobelco

Four times* the vehicle dismantling capability compared with hand dismantling.

*In one day (Kobelco test fig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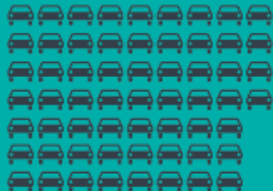
15 vehicles >

One operative working by 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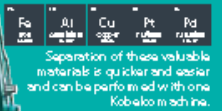
60 vehicles >

One operative in a Kobelco Car Dismantl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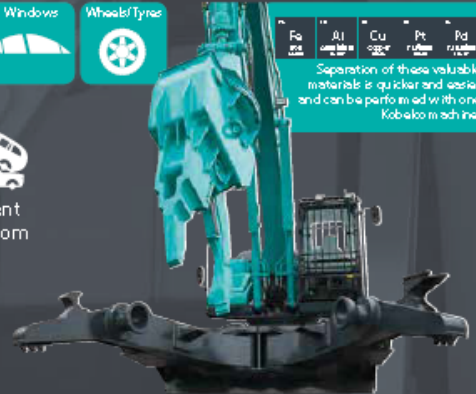


The machine's special attachment is designed to strip materials from End-of-Life Vehicles (ELV) safely and thoroughly

Improved recovery rate of rare earth metals



Separation of these valuable materials is quicker and easier and can be performed with one Kobelco machine.



SK210D



SK210D



SK 135SRD



コベルコ建機株式会社
www.kobelco-kenki.co.jp/

For Japan

成都神鋼工程机械(集团)有限公司
www.kobelco-jianji.com/

For China

(주)삼정건설기계
www.samjung-kenki.co.kr/

For Kore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U.S.A. INC.
www.kobelco-usa.com/

For North Americ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AUSTRALIA PTY LTD
www.kobelco.com.au/

For Australi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EUROPE B.V.
www.kobelco-europe.com/

For Europe

FAIR FRIEND ENTERPRISE CO.,LTD.
www.ffg-tw.com/

For Taiwan